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5. 11.(수) 10:0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0차와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등을 정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2년 1월에 「방송법」이 개정되어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를 받도록 하는 「방송법」이 개정되었고, 7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칙 및 별지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를 수정하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0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입니다. 기존 “즉시”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신고서 양식 수정입니다.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에서 처리절차 처리기관이나 도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재검토 기한 조항 분리입니다. 법제처 요청에 따라서 기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칙 재검토 조항’과 ‘규제 재검토 조항’으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의결을 완료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20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20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궤진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직무대리

- 20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작년 10월에 마련됨에 따라서 2022년도 추진할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5개년 추진 세부 과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세부추진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체계 강화 과제입니다. 동등한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고시를 개정하겠습니다. EBS 콘텐츠 재제작 부분을 초·중등으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편수도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콘텐츠 맞춤형 제작도 청년기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실시간(VOD) 방송은 종편PP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지상파 4사를 지원해 왔고, 올해는 장애인단체 선호도를 고려해서 종편PP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영세한 장애인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는 대전·세종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자체 간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콘텐츠도 3종 개발하고, 정부·공공기관에 필수교육 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또 나눔버스를 활용하여 체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과제입니다.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TV 35%를 보급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연 15,000대를 보급하고 누적보급률 3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해설방송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올해는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통합플랫폼 구축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IPTV 장애인특화 기능 셋톱박스 개발과 기술표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1년까지 IPTV(KT, SKB) 셋톱박스에 대해서는 특화기능 개발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LGU+ 개발 참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과제입니다.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ETRI가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실수요주체·R&D기관·정책 기관 등을 연계하여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고 검증하는 ‘이용자참여검증단’도 구성·운영하고, 서비스 기획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막을 수어로 자동 변환하는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도 연말까지 개발하고, 작년도에 개발 완료된 음성-자막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도 3,500여 명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TV 전용앱 개발을 위해 장애인단체, TV제조사, 앱 개발업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앱 기능 설계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과제입니다. 장애인방송 품질제고를 위해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품질평가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평가제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권 제정안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방송 유형별 홍보 영상 제작과 영상 공모전도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도 맞춤형 TV를 기증하는 등 국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각 과제별로 세부이행 계획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2월에는 2022년 이행실적 평가와 내년도 2023년 세부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붙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반TV, 스마트TV 등 다양한 제품 보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참고를 보면 현재 40형 스마트TV 단기종을 32형 일반TV, 40형 이상 스마트TV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 **곽진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직무대리**

- 지금은 40형 스마트TV 한 가지 유형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TV를 보급하다 보니까 TV 부분이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40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작은 것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32형이든 40형이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을 보고 기술개발의 속도에 따라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ICT 기술이 몇 인치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기종을 정해서 뭔가 제한을 둘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행계획 <8>번 이후를 쪽 보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ICT 기술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아예 텔레비전을 제조할 때 텔레비전에 그런 기능을 심어서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셨듯이 우리도 장애인 관련 접근권에 관해 입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이미

그것이 입법화되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TV제조업체가 그런 기술을 TV에 심어서 유럽에 수출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과거처럼 우리가 무엇을 개선한다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일반기업체와 협업해서 그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는 그들의 기술 개발을 복돋아주고 수출해서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협업모델을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기왕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산 활용 수단도 많지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고, 이 안에 동의합니다.

○ **곽진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직무대리**

-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TV에 자막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셋톱박스에 장애인방송 특화기능을 심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논의를 시작해 보고, 사실상 그 부분이 법제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에 우리가 장애인에게 뭔가 도와준다기보다 아예 그것을 기본화해 놓고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논의가 안 됐습니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이 방송통신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곽진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 **김 현 상임위원**

- 몇 개 정부부처가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보고과정에 제기했던 내용인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제작하는 곳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간 그동안 이런 논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곽진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직무대리**

- 위원님, 작년도 포용계획을 10월에 발표했고….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텔레비전에 기능탑재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TV를 제작하는 문제가 작년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종합계획 보고 때 제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써 5월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인데 사무처의 인사이드가 진행될 때 지난 시기에 됐던 것들을 제대로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슈나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곽진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작년에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었는데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미디어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분야 소외계층 포용 관련 정책들은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 더욱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나 또 단말기 제작사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다양한 방송통신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무처에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5페이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강화 및 UN ESCAP TV 기증 란에서 '대국민 홍보'라는 것이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첫 페이지 목차를 보면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애매합니다. 장애인방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자화자찬하기 위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UN ESCAP TV 기증 등 국제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무엇을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잘한 것을 해외에 자랑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국제연대 강화가 맞을 것입니다만 다른 후진국에도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TV를 제공해서 연대를 강화한다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국제 홍보라고 하니까 무엇을 국제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총망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집합을 한 것인데 결국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되겠지요. 아무튼 이번 포용계획 수립이 좀 더 현실화·체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작년 계획 수립에 이어서 그 계획 중 올해 추진할 구체적 사업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차후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이행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1분 폐회 】